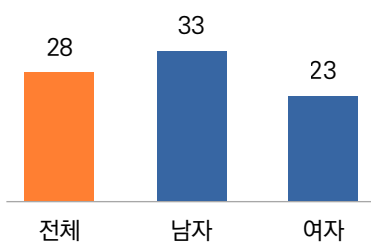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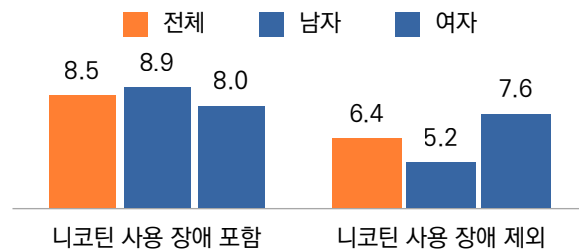
## 우리국민 4명 중 1명(28%),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해!

- ▶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「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」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자 33%, 여자 23%, 전체 28%로 우리 국민(성인)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한편으로 우리국민의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8.5%로 인구수로는 약 35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8.9%, 여자 8.0%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으나,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1년 유병률은 남자 5.2%, 여자 7.6%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경우 여성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나(0.4%p), 남성 하락폭은 3.7%p로 여성에 비해 큰 하락폭을 보였다. 이는 남성의 니코틴 사용 장애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.

[그림]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(단위 : %)



[그림] 정신장애 1년 유병률 (단위 : %)



\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「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」, 2021.12.24., (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,511명, 2021년 6~ 8월)

\*\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,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, 2021.12.24., (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,511명, 2021년 6월~ 8월)

### ◎ 정신장애 남녀 전체 1년간 유병률, ‘불안장애’가 가장 높아!

- ▶ 정신장애 각 진단명별 ‘1년 유병률’을 살펴보면 남자는 ‘니코틴 사용장애’(4.9%), 여자는 ‘불안장애’(4.7%)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남녀를 합한 전체기준으로 1년간 ‘불안장애’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.
- ▶ 우울/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여자가 6.6%로 남자 2.2%보다 3배가 더 높았다.
- ▶ 정신장애 ‘평생 유병률’은 전체 기준 ‘알코올 사용장애’가 11.6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니코틴 사용장애’ 9.5%, ‘불안장애’ 9.3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적으로 남자는 알코올/니코틴 사용 장애 비율이 높고, 여자는 우울/불안 장애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.

[표] 정신장애 각 진단명별 유병률 (단위: %)

주요 정신장애	1년 유병률			평생 유병률		
	남	여	전체	남	여	전체
알코올 사용장애	3.4	1.8	2.6	17.6	5.4	11.6
니코틴 사용장애	4.9	0.5	2.7	17.7	1.1	9.5
우울장애	1.1	2.4	1.7	5.7	9.8	7.7
불안장애**	1.6	4.7	3.1	5.4	13.4	9.3
(우울장애 + 불안장애)***	(2.2)	(6.6)	(4.4)	(9.0)	(19.8)	(14.4)

\*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,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, 2021.12.24., (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5,511명, 2021년 6월~ 8월)

\*\* 불안장애 : 강박장애, 외상후스트레스장애, 공황장애, 광장공포증, 사회공포증, 범불안장애, 특정공포증

\*\*\* ( )안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임